

2003 경남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3.4.13 시행)

< 출제평 >

이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된 것으로 실제문제와 다를 수 있고 정답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복원되지 않은 문제는 평이한 문제로서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최근제가 학생들과 함께 복원한 문제를 다른 사이트(강사)에서 자신들이 복원한 것처럼 무단 전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단전재하지 말기 바랍니다.

01. 합리적 경제인관(과학적관리론)과 사회인(인간관계론)의 공통된 인간관은?

- ① 동기부여 내재성 ② 욕구체제의 다양성 ③ 인간의 피동성
- ④ 인간의 합리성 ⑤ 능률성

(답) ③ 인간의 피동성, 욕구의 단일성, 동기부여의 외재성 등이 공통된 특징이며, 합리성은 행태론,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론에만 관련된다.

02. 실적주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 ② 기회균등 ③ 정치적 중립성
-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⑤ 능력과 자격에 의한 임용승진

(답)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중에서도 폐쇄형과 계급제, 학력 및 연령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만 확립되므로 실적주의 = 직업공무원제가 아니다.

(☞ 한교 4월문제집 378번과 동일)

03. 다음 중 거버넌스로서의 행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연결망 ② 공사(公私)의 구분 ③ 협력
- ④ 공공서비스 공급 ⑤ 공공성

(답) ② 이 문제에서는 뉴거버넌스를 거버넌스에 포함시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Peters의 입장). 다만, 거버넌스든 뉴거버넌스든 공공서비스를 이제 정부단독으로 공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비정부조직이나 민간부문도 공공성을 띠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뉴)거버넌스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연계망(공동체)에 의한 협동적 행정으로 공사(公私)의 구분을 상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04. 다음 중 의사결정의 점증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망성 ② 기존정책의 가감
- ③ 계속적(연속적) 결정 ④ 목표와 수단의 조화

(답) ① 합리모형은 현실적인 여건보다는 정책이 바람직한가(이상적인가) 하는 소망성(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점증모형은 소망성보다는 실현가능성(특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아무리 소망스러워도(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다.

05. 현대행정에서 공직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원인)으로 틀린 것은?

- ① 행정의 전문화 및 재량권 증대 ② 분권화
- ③ 공직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④ 부정부패
- ⑤ 행정의 거대화

(답) ② 부정부패의 확산이 행정윤리를 필요로 하였으며, 분권화는 하급관료들에게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커지므로 분권화와 함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다.

09. 다음 중 민영화의 기법이 아닌 것은?

- ① 민간이양(또는 계약) ② 공동생산(Co-production) ③ 허가(프랜차이즈)
④ 증서교부(바우처) ⑤ 재구조화(리스트럭처링)
(답) ⑤ 재구조화는 정부조직 내부적인 조직개편이지 민영화는 아님

10. 다음 중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예산제도는?

- ① 품목예산 ② 계획예산 ③ 자본예산 ④ 성과주의예산
(답) ①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LIBS)임.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강력히 통제하여 국민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을 말함. 성과주의는 관리중심, 기획예산은 기획중심의 예산임.

* 복원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평이한 문제임.